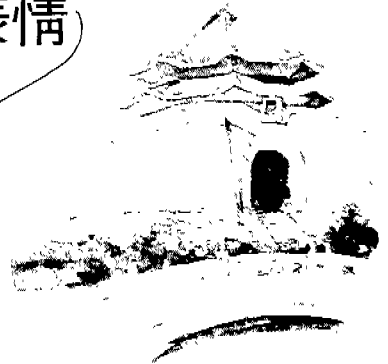


東南亞 諸國의 表情

(1)



朴 漢 宗

大韓電氣協會 弘報課長

지난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電氣協會 主管으로 '90 海外(東南亞) 產業視察이 있었다. 筆者는 本產業視察團의 幹事로 參加하여 各國을 訪問, 電氣施設과 風物을 돌아 보았는데 權龍得 視察團長과 서진항공(주)의 權代理가 自任하여 指揮·案内를 도맡아 해 버려 幹事로서의 役割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 또한 이번 行事に 있어서 不足함과 不便함을 눈감아 주고 참아주며, 協助해 주신 參加者들에게 誌上을 통하여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이번에 우리 一行을 案内해 준 서진항공(주)에서 나온 가이드 權熙榮 代理는 電氣技師 資格證을 가진 電氣技術者였는데 우리를 案内해 주는 데 있어 같은 電氣技術者여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신경을 써 주었고 항공기 탑승, 出入國 手續 등 모든 것을 완벽히 해 주어 平安한 旅行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都市 中心街에 위치한 高級 호텔중에서도 주변 환경과 경치가 좋고 交通이 편리한 호텔을 선정해 주었고 食事 또한 各國의 土俗 飲食은 물론 韓食도 적당히 配分하여 食生活에 불

편이 없게 해 준 바 있다.

또한 各國 現地에서는 그 나라 말에 능통하고 訪問地의 歷史와 文化, 그리고 現地事情에 밝은 가이드를 선정, 國內에서 旅行하듯 아무런 不便이 없게 해 주어 平安하고 有益한 旅行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讀者들에 양해를 구해 둘 것은 本稿에서는 電氣技術에 관한 것은 떠나서 오직 各國의 風物에 관한 것만 다룬다는 점이다. 技術事項에 대해서는 이번에 同參해 준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따로 집필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9 日 10 日의 旅程 開始

海外產業視察次 東南亞를 향해 서울 國際空港을 출발한 시간이 11時55分. 金浦空港 활주로를 덜덜거리며 달리던 CPA機가 어느새 사뿐 솟는다. 이제 旅路가 시작됐나 싶어 窓밖을 내려다 보니 건물과 사람들이 금방 장난감 같이 작아진다. 한참 가다 보니 몇백m 높이를 뚫는지 바다의 波濤가 보이지 않고 上下가 모두 靑色色, 하늘과 바다가 구별이 안된다.

● 臺灣

첫 到着한 臺灣은 人口 2千萬名 정도로서 本土에서 온 中國人과 原主民 高山族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면적 35,989km²의 섬나라.

이곳 대만의 治安狀態는 良好한 편이나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들었고, 한편, 술에 취해 다니는 사람이 없으며, 길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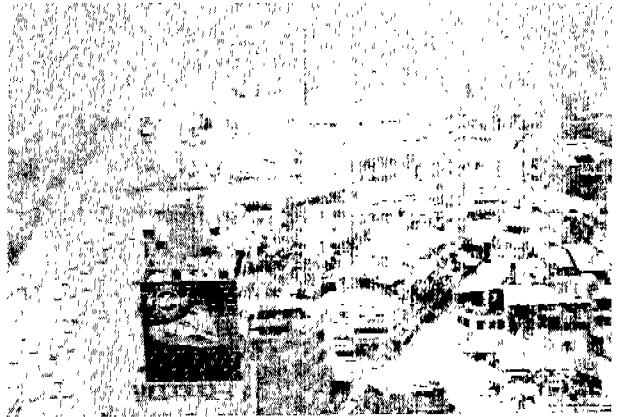
이곳 氣候는 여름이 한국보다 1개월 정도 빨리 온다고 해서 그런지 中正國際空港에서 밖으로 나가자 혹하는 熱氣가 얼굴을 덮친다.

마중나온 Bus를 타니 冷房裝置가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 Bus에 타고 보니 運轉席이 없다. 운전석 자리에 빈 의자만 있다. 자세히 보니 운전석은 한단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승객들이 타는 客席은 한국의 일반 Bus보다 높게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짐칸인 아래 쪽이 크고 2층 버스같이 생겼다.

空港에서 호텔로 가기에 앞서 먼저 北海岸에 위치한 野柳公園을 향해 高速道路를 달리는 데, 이 고속도로의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人夫들이 하도 만만디라서 (느려서) 애를 먹었다는 現地 가이드의 說明이다.

臺灣 가이드는 Mr. 손이라고 自身을 소개하면서, 자기 아버지(中國人)와 어머니(韓國人)가 현재 韓國 신림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 많이 愛用해 달라며 웃겼는데, 대만에 체류하는 동안 계속 친절하고 성실하게 案内를 잘 하여 주었다.

달리는 車窓을 통해 본 대만의 인상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되었다. 高速道路邊에는 키가 큰 유도화가 무리지어 피어 있었는데, 대만에서 본 꽃이라고는 아마 이 꽃과 칸나 정도이다. 꽃도 없고 街路樹도 없고(다만, 總統府가 있는 관청가 근방에는 고무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밤나무 비슷한 것, 그리고 야자수들이 잘 整頓



△ 臺北市 中心街

되어 심어져 있었다), 집들은 거무죽죽하게 더러웠다.

집들은 우리나라 연립주택과 같은 3, 4층짜리 아파트 비슷한 것이 줄지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검은 얼룩이 젖어 있었다. 가이드 말로는 모래가 黑色이라서 그렇다고 하며, 多濕하고 비가 우리나라 3배는 와서 질을 해도 오래 가지 않고 타일을 붙여도 곧 떨어져서 안 붙인다는 說明이었으나, 내 生覺엔 꼭 그래서만은 아닌 것 같았다. 도대체가 外形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움켜쥐는 習性 때문인 것 같았다(그후 中國인들의 집들은 태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하나같이 거무튀튀하고 얼룩이지고 벽 사이에 잡초가 나 있었다).

다만 길가의 사당(廟)들은 알록달록하게 색을 예쁘게 칠하고 지붕 등도 잘 꾸며, 그들은 자신의 집 보다는 祖上을 모시는 건물을 熱心히 꾸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산에도 나무다운 큰 나무가 없고 雜木과 넝쿨이 얽혀 있고 억새풀이 무성하여 마치 6·25 당시의 우리나라 野山을 방불하게 하였다. 火山 때문에 돌이 많아서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說明이 있기는 했지만……

原來 대만은 中國本土와 연결되어 있다가 바다 속으로 完全히 가라앉았고, 그후 火山 폭발로 생겨난 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돌이 灰色~色이고 카바이트 같았다.

野柳公園과 馬槽溫泉

野柳公園에 도착하니 自然의 神秘에 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奇岩마다 독특하게 생겨 있었으며, 이 波濤에 침식된 바위들에는 女王頭, 美女가 목욕하는 바위, 乳岩, 海龜石 등과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도 20개 이상이나 되었다. 생김새가 마치 原子彈 터지는 것 같이 버섯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 크기도 1m~3m로, 가지 각색이었다. 乳岩이라는 것이 수 10개씩 줄지어 있는데 마치 乳房같이 생긴 것무덤에 젖꼭지가 또렷하게 달려 있다. 自然이 만든 이 藝術品을 어찌 사람이 흉내낼 수 있을까?

그곳 食堂에서 팔딱팔딱 튀는 손가락 2배 만한 살아있는 새우를 손으로 잘라 초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았고, 食後에도 꺼림직하였다.

揚明山을 구비구비 돌면서 臺北으로 가는 길에 馬槽溫泉에서 잠깐 Bus를 내렸는데, 이곳은 우리나라같이 溫泉물을 끌어 浴湯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냥 山골 여기저기 바위에서 平均 120℃의 물이 솟아 나오 있었고 사방의 바위 구멍에서는 뜨거운 김을 계속 뿜어내고 있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좀에 좋다고 하여 一行中 몇몇은 양말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그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바위에서 바로 나오는 물은 뜨거워 발을 담그지 못하고 좀 下流에 가서야 可能하였다.

타이페이(臺北)에 들어서니 우선 印象的인 것이 오토바이 떼들이다. 道路을 한꺼번에 3, 4列씩 줄지어 30, 40대씩 달리는데, 自動車 사이를 요리조리 잘도 빠져 나가며 달린다. 1家口에 1대 꼴이라니 그 수를 짐작할만 하다.

交叉路에는 交通巡警이 없고 모범 운전사들이 간간히 交通整理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동차를 汽車, 오토바이는 機車, 기차는 火車라고 하는 것이 낯설었다.

市内 高層 빌딩 사이에는 사당들이 많이 있었고 8차선이나 되는 큰 길가나 좁은 길가이나



△ 野柳公園의 乳岩들

露店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뒤편지 복잡복잡하게 섞여 있는 都市, 이것이 臺北의 첫 印象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서 길가의 建物들은 1층이 全部 歩道로 되어 있다.

그리고 臺北 가는 곳마다 나는 냄새가 있다. 코리아nder라는 香菜(시향차이)는 향신료로 사용하는 채소 종류라는데, 이 썩내가 안 나는 곳이 없다.

臺灣電力

호텔에서 1泊을 하고 둘째 날인 5月17日 아침 臺灣電力을 방문하였다. 公共建物이라서 그런지 30층 정도는 되는 큰 建物에 内部施設도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다. 專務級 幹部가 우리一行을 맞아 案内를 해주었는데, 멀티비전, 슬라이드 등으로 會社와 대만 전력사항들을 說明해주었고 建物 上層部에 있는 制御室 운영상태를 보여주고 나서 豫想하지도 않던 點心을 대접 받았다.

中國葉茶로부터 시작해서 生鮮까스, 비프까스 등 食事が 계속 나오는데, 맥주는 薑이 빌 때마다 계속 따라준다. 무심한 食事대접을 받고 나서 높고 華麗한 1층 로비에 마련된 직경 3m는 되는 歡迎 아치 앞에서 記念寫眞 촬영을 하고 따뜻한 접대에 고마운 마음을 안고 그곳을 떠났다.

故宮博物院과 忠烈祠

午後에 찾은 곳은 臺北의 故宮博物院. 中國 4大博物館의 하나로서, 中國 歷代 皇帝가 수집한 컬렉션이 62만점이나 소장되어 있는데, 항상 2만점을 展示하고 있다고 한다. 中國文化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展示品은 일부를 남겨 놓고 3개월에 한번 7000개씩을 바꾸어 전시하는데, 만일 모두를 본다면 8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것들을 자세히 보려면 며칠을 할애해도 충분치 않을텐데, 2시간도 못보았으니 수박 겉핥기라고나 할까.

中國大陸 北京에는 故宮이라고 불리는 宮殿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 內部에는 침대·책상 등의 몇가지 家具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內容物들은 全部 이곳 臺北의 故宮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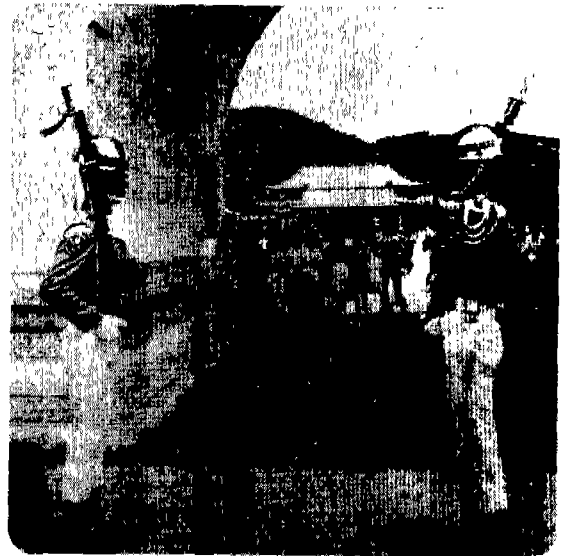
옛날 日本軍이 中國大陸을 침략했을 때 故宮의 보물들은 전부 大陸南部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中國 共產黨이 本土를 장악했을 때 國民黨은 이것을 가지고 대만으로 온 것이다. 故 蔣介石 총통이 大陸에서 나올 때 세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自身の 心腹部下와 金 그리고 이 보물들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여기서 이 박물관에 전시된 代表作品을 살펴보면 ① 靑銅器(은·주나라 때의 靑銅器로서 은나라 때의 것에는 기괴한 무늬장식을 한 것이 많고 주나라 때의 것은 새 무늬 장식과 文字가 들어 있는 것이 많다), ② 甲骨文(거북의 등 껍질이나 쇠뼈에 새겨진 은나라 때의 象形文字), ③ 殷王墓(193年 河南省 은왕의 묘에서 발굴된 물품을 전시, 옥·청동기·도기·대리석 조각 등) ④ 磁器(송나라 때의 龍泉窯 등의 대표적인 窯作品을 모아 놓았는데, 특히 '靑磁冠'이라고 하는 汝窯 작품은 세계에서도 30여점밖에 現存하고 있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 23점이 이곳 고궁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⑤ 陶器(역사 이전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도자기); ⑥ 書畫(書는 晉나라부터 청나라 때까지의 명서 1,000여점) ⑦ 彫刻

(明나라·淸나라의 조각을 전시하고 있고 작은 북송아씨 등에 새겨진 정밀한 조각은 구경거리이다), ⑧ 琺瑯器(금속에 에나멜질의 유약을 발라 구어낸 것으로 보석이 박혀 있는 보은병과 금색 꼬리가 뻗어 있는 오리화도가 아름답다), 기타, 玉器, 漆器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특히 구슬 속의 조각은 世界의 몇몇 不可思議중의 하나라고 한다.

다음 訪門한 곳은 忠烈祠인데, 이곳은 中國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애국 선열들의 위패를 모셔 둔 곳이다. 正門과 주요 건물 入口에 衛兵이 서 있었는데 이들은 눈만 깜짝일뿐 微動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衛兵交代가 불만 하였다.

우리가 대만에 있는 동안 묵은 곳은 大福호텔이었는데, 4泊하는 동안 每日 아침 食事は 이곳 食堂에서 하였다. 食單은 韓國式, 中國式, 日本式의 짬뽕 부페 식사. 食後에 드는 과일은 韓國에서는 귀한 편에 드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인데,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흔하고 보니 많이 먹지를 못하고 파인애플 두 조각, 바나나 2개 정도이다. 소갈이 뱃속에 저장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 忠烈祠의 衛兵交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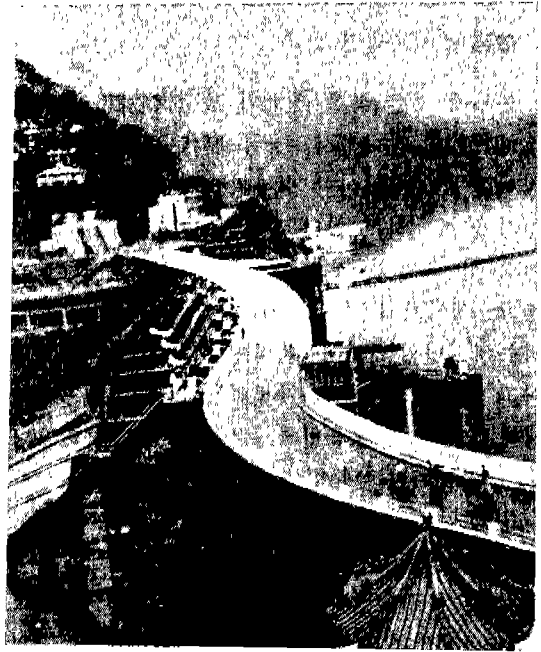
없고... 하기야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부페 식당은 없어지고 말겠지.

TDK 訪問과 石門水庫·小人國·龍山寺

5月18日 午前에는 TDK(臺灣東電化股份有限公司)를 訪問하였다. 이 會社는 日本에서 1935년에 設立되었고 대만 TDK는 1968년에 설립되어 22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 資本金은 日本 85%, 臺灣 15%, 從業員 2,600名(男 600名, 女 2,000名), 製造品目 FERRITE SOFT HARD, COIL COMPONENT, POWER SOPPLY, FA 機器, F/A(그로피해드) 등이라는 설명이었는데, 會議室에서 茶果와 함께 會社 소개를 받은 후 工場을 돌아 보았다.

見學後 石門水庫(수력발전소 댐)에 들러 비를 맞으며 돌 위를 걸어 貯水池를 돌아 보았다. 이 곳은 臺北에서 南쪽으로 52km 떨어진 곳인데, 높이 133m, 길이 380m, 면적 8.1km², 저수량 316 백만km³라고 한다. 저수지, 발전소로 建造된 多 川의 댐으로서 좀 異常한 것은 댐 배수로 아래에 道路가 있어 물을 뺄 때는 道路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昭陽江이나 충주댐 과는 비교가 안되었지만 그런대로 이곳은 나무도 있었고 물도 깨끗한 것 같았다.

山을 Bus로 내려와서는 小人國 관광을 하였다. 이곳은 한눈에 5千年 中華文化를 볼 수 있다는 곳으로, 臺灣 전지역, 中國大陸의 유명한 건축물을 볼 수 있다. 1984년에 문을 연 관광명 소로서, 故宮博物院·國父紀念館·中正紀念堂·中



△ 石門水庫(발전소 댐)

國大陸의 北京 紫禁城·萬里長城·龜門石佛 등이 모두 1/25로 축소되어 만들어져 있고, 특히 高雄港埠頭는 배들이 물 위를 떠 다니고 있어 실물과 같았고, 城 안에는 인형들이 절도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약 5만개가 된다는 각 장소에 배치된 小人들의 복장·모습 등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꾸며져 있어 그 纖細한 솜씨에 놀랄뿐이다. 그러나 우산도 없는데,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탓에 빨리 돌려 보아도 2시간은 걸린다는 것을 1시간도 못보고 끝내니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 점심은 小人國에서 대만요리로 마치고 다



△ 小人國(左·蓬蒿 天后宮, 中·용문석굴, 右·만리장성)

시 臺北市로 돌아 왔다.

산을 구비구비 돌면서 Bus 車窓으로 보는 光
景들은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異國 풍취가 물씬
 풍기기를 바랬으나 이곳 山 역시 山勢가 초라했
고 溪谷 물은 뿌연 灰色의 구정물 같고, 溪谷과
 길가 排水路에는 짙은, 비닐 조각 등이 어지럽
 게 흩어져 있었으며, 게다가 집들은 역시 거뭇
 거뭇 얼룩진 것이 다른 곳과 同一했고 곧 귀신
 이 나올 것만 같았다. 國民所得이 우리보다 높
 다는데 왜 저렇게 사나 싶었고, 한편, 우리나라
 서울의 청계천 7·8가 양쪽 건물(빌딩인지 아파
 트인지 모르지만)들도 外國 사람들 눈에 어떻
 게 보일까 염려가 되었다.

夕食前에 간 곳은 龍山寺라고 하는 臺灣에서
 有名한 절이다. 이곳은 대만 사람들이 一生에
 한번은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절이라고 한다. 境
 內에는 60cm 정도 되는 긴 香을 10개씩 묶은 것
 을 불을 붙여 두손으로 가슴 앞에 들고 무엇인
 지 熱心히 중얼거리며 祈願하고 있기도 하고 나
 무로 만든 조개비 같은 것을 佛壇앞에서 몇개씩
 던지고 있는 것이, 무슨 점을 치고 있는 것 같
 았다.

香 냄새와 煙氣가 진동을 하고 信者들과 관광객
 이 한데 어우러져 熱氣가 가득했다. 그리고

해외 사업시찰 참가자 명단

권 용 득	명신종합전기 대표 (단장)
박 한 중	대한전기협회 홍보과장 (간사)
김 선 경	대한전기 (주) 회장
안 영 수	주광전기 (주) 기술국장
김 승 기	대한전기협회 경북지부 지부장
이 학 조	한전 경남지사 배전부장
권 병 무	선광전원 (주) 대표
강 수 찬	문화전기사 대표
정 해 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점장
이 순 형	파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장
임 세 환	신진전선산업 (주) 전기부장
이 용 주	보문전기 엔지니어링 대표
최 병 태	(주)문화방송 신설운용부 차장

부처님을 헤일 수 없이 많이 모셔 놓았을 뿐만
 아니라 孔子같이 생긴 분도 모셔 놓고, 뒤죽박
 죽인 것 같아 어리둥절했다.

龍山寺 문앞의 龍山寺 공원 옆 東三水街 新富
 市場에는 肉類·生鮮 등을 파는 가게가 길게 이
 어져 있고 龍山寺 북쪽에 있는 華西街에는 자라·
 살모사 등 精力劑가 된다는 珍奇한 것을 파는 가
 게가 많다. 뱀을 직접 잡고, 생피도 팔기도 하
 고 있었다. 요상하게 活氣가 넘치는 이 夜市場
 에는 이밖에 원숭이, 개구리 등 없는 것이 없다.
 精力에 좋다면 우리나라나 中國 사람이나 日本
 사람이나 모두 눈에 벌겍게 덤비니 참...

저녁 食事は 居宮 몽고 바베큐를 들었다. 고
 기가 종류별로 (소·돼지·사슴·양·닭) 담겨져 있
 는 바구니 앞에 가서 접시에 자신이 먹을 만큼
 담고 양념을 직접해야 한다. 간장·야채·된장·마
 늘 등을 고기에 얹어 고기를 볶아 주는 곳에 가
 지고 가면 直徑 2~3m는 되는 큰철판에서 샐
 같은 것으로 3, 4 명이 볶아 준다.

이것을 제 자리로 가지고 와서 빵이랑 술이랑
 같이 먹는데,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맛이 있다기 보다 누린내가 나고 비위가
 좀 상하는 것 같았다.

花蓮 大魯閣 峽谷과 高山族

5월 19일은 終日 관광하는 날이다. 臺北에서
 花蓮까지 150人승 비행기로 갔는데, 비가 오고
 氣流가 나빠서 飛行途中 비행기가 左右 上下로
 많이 요동을 쳤으나 20분만에 目的地에 도착했
 다. 花蓮空港에서 전세 Bus를 타고 한참 가면
 길이 19km의 大魯閣 협곡이 시작되는데, 대리석
 으로 形成된 斷崖絶벽의 협곡이 시작되는 곳에
 東西橫貫公路라고 써어진 門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곳부터 觀光客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마
 침 비가 와서 이날은 없었으나 이곳은 아이족
 차림을 한 女子들이 모델료를 받고 사진을 찍는
 곳이라는 案内者의 설명이다.

조금 더 가서 大理石 갈라진 틈에서 떨어지는
 長春瀑布가 인상적이었고 그곳에 長春詞가 있는

데, 이곳에는 東西橫貫公路를 건설할 당시 순직한 사람들을 모셔 놓았다고 한다.

이 道路는 中國에서 移動해 온 國府軍들이 할 일은 별로 없고, 國家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해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폭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人力으로 뚫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다시 더 한참 가면 멋있는 다리가 나타나며, 근처에는 銀帶瀑布가 있고 동굴도 있는데, 이 동굴에서 不動明王을 제사지내고 있다고 한다.

끝없이 계속되는 좌우 절벽들에서는 수 많은 폭포들이 물을 쏟고 있었는데,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서 瀑布水가 더 많아진 것이라고 한다. 가는 道路 중간 중간 돌천정 위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웅장하고 신비한 光景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江을 낀 絕壁의 간격이 가장 좁아진 곳을 燕子口라고 하는데, 돌 벽에는 無數한 구멍이 있다. 이것이 제비집이라고 한다. 大理石을 파고 낸 道路는 터널의 연속이며, 깎아 낸 벽안은 약간 어둡다.

錐麗大 斷崖에 이르면 높이 200m 나 되는 벽이 양쪽에서 좁아지는데, 밑에서 위를 쳐다 보면 하늘 모양이 대만 섬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9개의 구불구불한 터널이 이어지는 九曲洞에 이르면 까마득히 아래 쪽으로 보이는 계곡에 灰色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가이드 말로는 비가 안오는 날은 파랗고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한다. 맑은 날에는 觀光客들이 종이조각을 잘게 찢어 계곡에 던지면 上昇氣流 때문에 江水面에 닿지 못하고 하늘하늘 춤추면서 全部 올라온다고 한다.

峽谷의 終點 天祥은 크게 열려진 강가 모래벌판에 만들어진 峽谷의 終着點이다. 海拔 450 m로서 토산품점·경양식집·호텔·우체국·교회도 있다. 구름다리를 건너 맞은 편 산 중턱에는 붉은 七重塔·天峰塔이 보이고, 孟母亭·비구니 절인 祥德寺가 있다. 一行中 몇몇은 극성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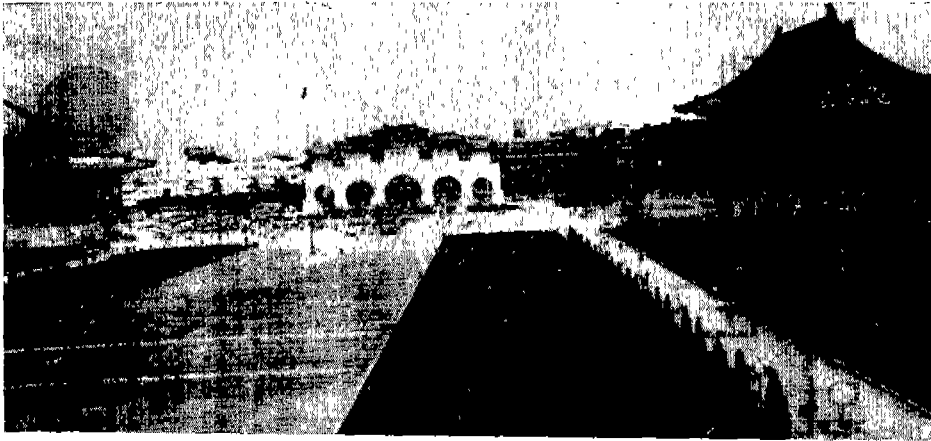
△ 大魯閣 협곡의 쪽포수

祥德寺까지 흔들거리는 구름다리를 건너가 足跡을 남기고 왔다.

天祥까지 갈 때는 中間에 내려서 求景도 하면서 갔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렸으나 花蓮 마을까지 오는 데는 Bus로 마구 달려서 30分 정도가 소요됐다. 原住民인 아미族의 노래와 무용을 보여주는 아미 文化村에 들러 비취 등 寶石들과 紀念品 쇼핑을 하고 나서 쇼를 관람하였다.

아미族은 대만 原住民中 高山族中에서도 가장 온화하다고 한다. 高山族은 言語·生活樣式 등의 차이로 10種族으로 크게 나뉘는데, 9종족으로 분류하는 것은 약 300名 정도의 사우족을 種族으로 分類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라고 한다.

高山族 전체의 人口는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少數民族 보호를 위해, 일반인이 高山族 부락에 들어가려면 경찰서의 入山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臺灣의 高山族을 간단히 알아



◁ 中正公園內 廣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타이야르族(아타야르族: 인구 6만명, 중앙산맥 북부 거주, 30개 정도의 부락으로 나뉘어 서로 정치·사회적으로 독립 유지, 해발1,000m 이상의 깊은 산에 거주, 예전에는 종족간에 폭을 베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② 사이샤트族(사이세트族: 인구 1천명, 文化的으로 타이야르族과 가깝다). ③ 퓨마族(인구 6천명, 臺東 서쪽 平地에 거주, 好戰的이며 母系社會的 풍습이 있다). ④ 야미族(인구 3천명, 대만 동남쪽 바다의 蘭嶼島에 살며 高山族 가운데 유일한 도서 생활민). ⑤ 부눈族(인구 4만명에서 약간 부족, 중앙산맥 중부의 산악에 거주, 八支族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父系的 씨족 조직을 갖고 族外婚계이며, 日本 식민지 시대에 끝까지 皇民化를 거부). ⑥ 사오族(사우族: 인구 300명으로 작은 種族). ⑦ 추오族(인구 5천명, 풍습 부눈族과 비슷하며 族外婚, 父系氏族 조직, 首長 세습제). ⑧ 루카이族(인구 6천명, 세습적 首長制, 귀족과 평민의 계급 조직 유지). ⑨ 파이완族(인구 4만명, 중앙산맥 남부 산악부 거주, 세습적 首長制 및 평민·귀족 계급 유지, 지위·재산 계승은 男女 관계없이 長子 상속). ⑩ 아미族(인구 12만명으로 高山族 가운데 최대 種族. 米作 중심의 농경 종사, 母系社會, 성격이 온순하고 臺東 시민의 반수가 아미族).

아미 文化村에서 1시간에 걸쳐 아미族의 노래

와 무용을 興味있게 구경하고, 끝날즈음에는 出演者와 觀衆客이 함께 어울려 포크댄스 같은 것을 추고 사진 찍고 즐거운 時間을 가졌다.

오후 4시 5분경 汽車로 臺北을 향해 出發. 새 마을號와 같은 高級汽車였으나 이곳에서는 특급 열차에도 立席이 있었다. 太平洋 海岸을 끼고 달리는 기차 길은 마치 우리나라 東海를 끼고 달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도 하였다. 다만 砂場이 모두 白砂場이 아니고 黑色 모래여서 우리의 海水浴場과 비교되었으며, 산과 바다가 모두 수려하고 아름다운 韓國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다. 汽車로 3시간 반정도 걸려 臺北에 도착했다. 오는 도중 車窓에서 보는 시냇물은 모두 灰色 一色. 물은 더럽고, 질들은 초라하고, 사당만 화려한 風景들이었다.

圓山大飯店·忠正紀念堂

9월 20일에는 아침에 圓山大飯店(호텔)을 求景하였는데, 이곳은 아름다움으로 世界 10대 호텔 중의 하나에 들어 간다고 한다. 여기서도 中國人的 雄壯한 스케일과 건축방식에 讚嘆의 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一般 市民들의 生活과 比較가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故 장개석 총통을 記念하여 세워진 中正紀念堂도 높이 70m의 大理石에 푸른 기와지붕이 빛나는 웅장한 건물 이었고 광대한 中正公園은 잘 다듬어져 있었다.

(다음 號에 계속)